

브라질 은혜의 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역지의 진행 과정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원으로 사용하던 선교관을 법정관리 하에 2018년 1년 동안 시청에서 사용을 하였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는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12월22일 아이들이 이사를 가면서 28일 옮긴다는 서류도 결국은 새해 4일에나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8일 화요일부터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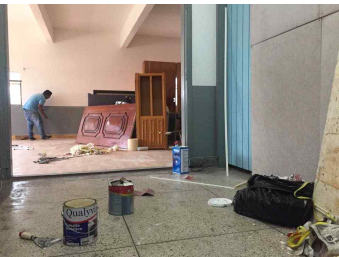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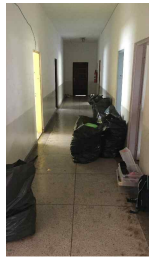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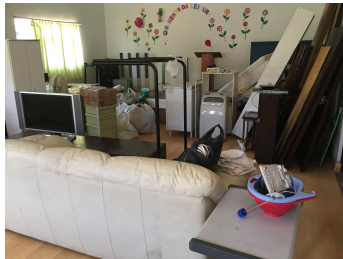
일단 대청소와 내부 칠 그리고 깨진 유리 바꾸는 작업을 시작으로 보수 공사는 차차 해 나가려 합니다.

이 작업만도 만 헤알(2천5백불)이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한해 거의 모든 후원을 고사도 하고 끊 어지기도 해서 고민이 되기도 했으나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1월을 시작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했 던 모든 물건들을 청소와 내부 페인트칠을 한 후 재배치도 해야 하기에 직원 두 명을 썼는데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래층 청소와 칠 및 내부와 주변 정리하면서 두주간이 지났습니다.



30장의 유리를 갈고서야 예전의 모습을 조금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내부 페인트와 청소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 할 때 계획은 복지사역을 시작으로 교육사역, 의료사역을 7년마다 확장해 감으로 20년 이후 세 가지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사역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지사역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지사역도 지속 되겠지만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할지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기술학교를 통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사역의 대상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요란하지 않되 서서히 넓혀 가려 합니다.

2018년 연말의 너무도 갑작스런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2월부터는 사역의 진행을 위한 건물 내부용도 변경과 외벽공사 및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정리와 공사를 위한 재정의 채워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19년을 시작하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유충선, 최인숙 선교사 올림